

“네거티브 자제...지역균형발전 근거 개헌에 포함”

이낙연 전 대표 광주서 기자회견

더불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개헌할 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명료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선에서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선 후보 간)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어떤 언동도 하지 않는 것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당내 경선이 네거티브로 치달을 경우 지지층의 이탈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또 최근 이 지사의 ‘백제 발언’ 논란과 당내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의 ‘영남 확장성’ 발언을 의식한 듯 ‘지역 구도 소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지역 구도를 이용한 대통령 자리라든가 전 번이라도 사양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 피맛한 절규를 저는 잘 기억한다”면서 “지역구도를 소환할 만한 어떠한 언동도 자제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감하지 못한다”면서 “이제는 지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공동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련한 리더십을 갈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재명 후보가 더 쉬운 상대가 될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야권의 윤석열 후보가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 판

결이후 대통령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서는 “매우 거칠게 정치공세를 하고 있어 대응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다”며 “이제 정치를 시작한 분

답게 신중한 생각과 준비된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최종 정리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다”면서 “축약하면 초광역적 권역별

발전 전략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지역발전은 사·도별로 이뤄졌기 때문에 큰 규모의

정부 공모사업이 잘게 쪼개지고, 인접 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되는 역효과가 있었다”면서 “초광역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추가이전도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간이 적게 남았을 지

라도 이전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면서 “또 수도권

에 있는 본사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본사를 수도

권과 지역 두 곳에 두는 방식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개헌할 때 지역 균형발전의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명료하게 담았으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다”면서 “다소 무리로 보이는 법률도 만들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와 총리직을 맡으면서 경선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면

서 “경선 연기로 인해 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만큼 많은 국민들을 만나보고, 많은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불평 등 축소, 공정 재정립 등 직면 과제가 대단히 많고,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급박한 과제다”면서

“또한 모처럼 한껏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G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가장 근접하게 준비된 사람이 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원팀협약’ 한다면서...이재명-이낙연 신경전

당 지도부 제동 불구 ‘네 탓 공방’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경선 후보들의 ‘원팀 협약식’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백제 발언’ 논란이 지역주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이들 후보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누구도 지역비하 얘기를 우리 캠프 측에서 꺼낸 적이 없고, 이낙연 캠프에서 꺼냈다”며 “지역 비하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을 걸고 극복하고자 했던 내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마당에 ‘원팀 협약식’이 무슨 의미냐는 강경한 흐름도 있다”고 전했다.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

서 이 전 대표를 겨냥,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려 김대중-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형태의 네거티브”라며 “네거티브로는 1등을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으며 “당시에는 반대에 대한 의사가 없었고, 17년이 지나서야 ‘내가 반대했다’고 불투명한 표현을 했다”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 최인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지사의 인터뷰 전문을 다섯 번 정도 다시 읽어봤는데, 특정 지역 불거른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지역주의에 기초한 선거전략을 가졌다는 의구심”이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탄핵론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정치적 양심을 걸고 반대했다고 명확히 수차례 밝힌 것을 거짓말로 몰고 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네거티브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을 모신 비서 출신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

호남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체성으로 결코 용납 못할 태도”라며 “안동에서의 ‘영남 차별’ 발언 등을 보면, 지역주의에 젖어있다는 것”이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이재명 28.6%, 윤석열 24.3%, 이낙연 16.9%

원지코리아, 대선 적합도 조사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6주 만에 역전을 허용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때인 2주 전보다 2.8%포인트 상승한 28.6%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2주 전보다 2.1%포인트 하락한 24.3%였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6월 2주차 33.3%를 기록한 이후 6주 연속 하락한 끝에 이 지사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격차는 4.3%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주 전보다 0.5%포인트 오른 16.9%를 기록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8%포인트 오른 5.9%로 뒤를 이었

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5.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가 51.4%, 이 전 대표가 34.1%, 추 전 장관이 4.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 전 총장 51.8%, 최 전 원장 11.9%, 홍 의원 11.8%, 유승민 전 의원 5.2% 순이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3.9%로 이 지사(42.4%)에 1.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에 45.6% 대 43.4%로 2주 전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앞섰다.

원지코리아는 “다자대결에서 이 지사를 지지한 응답자의 71.0%가 양자 대결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했다”며 “반면 다자대결에서 이 전 대표 지지층의 47.7%만이 양자 대결에서 이 지사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